

저자들은 최근에 폐 원발성 악성 혈관 외피세포종 2례를 경험하였기에 그 흡인 및 접촉도말 세포학적 소견을 조직학적 소견과 비교 검토하여, 그 세포학적 특징을 보고한다.

환자는 각각 67세 여자와 30세 남자로 폐장의 좌측 및 우측 상엽에 각각 직경 10cm 및 11cm 크기의 경계가 잘 지워지는 종괴가 관찰되었다. 세침 흡인 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한 후 종괴 적출술을 시행하였다.

세포학적 소견은 두예 모두 동일하였다. 도말배경은 깨끗하였고, 세포성분은 풍부하였으며, 조직편, 느슨한 세포군집, 그리고 개개의 세포들로 흩어져서 도말되었다. 조직편은 불규칙한 모양을 보였고, 작은 혈관 주위로 세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양상이었다. 종양세포들은 방추상의 균일한 모양을 보였다. 세포질의 양은 적고, 엷은 호산성이며, 세포질의 경계는 불분명하였다. 핵은 난원형 혹은 방추상이었고, 핵막은 얇고, 부분적으로 함몰되기도 하였다. 염색질은 섬세하거나 거친 과립상으로 고루 퍼져 있었고, 한개 혹은 두개의 뚜렷한 핵소체가 관찰되었다.

## 6. 부유방에서 발생한 악성 엽상 육종

###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1례 보고-

인하대학교 인하병원 해부병리과

김준미, 주영채

악성 엽상육종은 유방에서 발생하는 드문 질환으로서 다른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액와의 부유방에서 원발성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빈도가 극히 적다. 유방은 정상이면서 액와에서만 발생하였을 때 전이성 림프절 종대나 여러가지 원발성 악성 및 양성종양과의 감별이 필요하며 종양의 크기가 큰 경우 정상 유방에서 기원한 종양과의 감별도 필요하다. 액와에서 발생한 엽상육종은 유방에서 발생한 경우와 세포학적, 조직학적 소견은 동일하다. 저자들은 액와의 부유방에서 발생하였고 유방은 정상이었던 악성 엽상육종 1례를 경험하고 그 세침 흡인 세포학적 소견을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28세 여자로서 1년전부터 발생한 우측 액와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첫아기 임신때 우측 액와에 작은 종괴가 발생한 적이 있었으나 출산 후 저절로 없어졌던 경험이 있었다. 둘째 아기를 임신한지 4개월 경부터 다시 종괴가 생겼으며 점차 커져 출산 후에도 사라지지 않아 본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출산후 7개월째였고 수유 중이었다. 이학적 검사에서 양측 액와부에 각각 작은 유두가 1개씩 있었다. 종괴의 크기는 8×8×6cm으로 촉지되었으며 압통을 동반하였다. 초음파 검사상 매우 경계가 좋은 비균질성의 음영이 우측 액와부에서 관찰되었고 주변조직으로의 침윤은 없었다. 유방조영법에서 유방은 정상이었다. 종괴에서 세침흡인 후 종양을 광범위 절제하였다. 종양세포는 이형성이 매우 심한 방추형으로서 날개로 흩어져 관찰되었고 세포밀도가 높았다. 핵/세포질 비율이 비교적 높으면서 핵의 크기와 모양이 매우 불규칙하였고 거대핵 세포 및 다핵 세포가 출현하여 세포학적으로 분명한 악성을 나타냈으며 비정상적인 유사분열도 자주 관찰되었다. 이와 함께 소량의 상피세포가 관찰되었는데 관상구조를 하고 있었고 이형성이 없었다. 절제된 종괴에서 엽상육종의 전형적인 육안 및 조직 소견이 관찰되었다.